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놀이중심지지 신념,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를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이 조절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 4세, 5세 유아 254명과 그들의 어머니와 담임 교사이다. 어머니의 자기보고 자료와 담임교사가 측정한 유아의 놀이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은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 및 유아의 놀이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유아의 놀이성 중에서 사회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은 유아의 놀이성, 특히 신체적 자발성 및 즐거움의 표현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의 조절효과에 있어서 유아의 즐거움의 표현에서만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 놀이성의 다른 하위요인과 놀이성 전체에 대해서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가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이 유아의 즐거움의 표현 능력과 관련된 놀이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주제어: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
유아의 놀이성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의 조절효과* **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Play Support Beliefs on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Insecure Attachment and Children's Playfulness

채 민 경¹⁾ 장 경 은²⁾
Min Kyung Chae Kyung Eun Jahng

I. 서론

놀이성(Playfulness)이란 놀이행동을 일으키는 심리적 성향을 의미하며(고윤지, 김명순, 2013), 놀이를 하게 하는 잠재적인 동력이 된다(Glynn & Webster, 1992). 유아들은 동일한 놀이를 하더라도 다양한 반응과 행동을 보인다. 활동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유아가 있는 반면 혼자 노는 것을 선호하는 유아도 있다. 또한 놀이를 하면서 감정표현을 다양하게 하며 잘 웃는 유아도 있고 감정표현을 소극적으로 하는 유아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놀이행동은 유아의 놀이성과 관련이 있다(Barnett, 1990b).

놀이성은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등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Lieberman, 1965). 신체적 자발성은 놀이 중에 사용되는 신체 간의 협응과 유연성의 정도를 의미한다(이재은, 2006). 사회적 자발성은 또래와의 협력 및 친밀감을 비롯하여 주도적인 역할 수행의 정도를 뜻한다. 인지적 자발성은 놀잇감 탐색에서 창의성, 융통성, 상상력을 발휘를 통하여 자신만의 놀이를 만들어가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즐거움의 표현은 놀이를 하면서 즐거움과 행복감 등의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정도로서 이러한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이 다른 놀이 상대자와의 관계 형성에도 기여한다. 유머감각은 또래들과 재미있는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농담을 하는 등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자 노력하는 모습과 관련있다(황윤세, 이혜원, 2005). 놀이성은 이러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놀이성이 높은 유아는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더욱 사회적이며 협조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놀이성 수준에 따라서 유아의 놀이 행동은 다르게 나타나며 놀이성은 유아의 긍정적인 사회정서발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미숙, 송순옥, 2013).

* 본 논문은 2018년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2018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임.

1) 이화동발달연구소 놀이치료사, 제1저자
2)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kjahng@khu.ac.kr)

이에 유아의 놀이성과 관련이 있는 변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유아의 놀이성과 관련하여, 유아의 성별(강지혜, 이경님, 2011; 장완수, 2012) 및 연령(Barnett, 1991), 유아의 기질(정혜옥, 2014), 부모의 놀이성(김기순, 박인전 2002; 정미라, 이방실, 강수경, 2017), 부모의 양육행동(강지혜, 이경님, 2011; 정미라 외, 2017),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정혜옥, 2014), 어머니의 취업여부(임진경, 노은호, 2014), 부모의 놀이참여 시간(윤상인, 2011), 월평균 가구소득(김수정, 2007) 등이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관련 변인 중에서 유아의 개인의 기질이나 성별 등의 개인내적 요인이 아닌 상대적으로 변화가 쉬운 환경적 요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놀이성과 관련하여 주로 연구되어 온 환경적 변인은 부모와 교사이다. 즉, 부모의 놀이성과 양육행동(강지혜, 이경님, 2011; 김기순, 박인전 2002; 정미라 외, 2017) 그리고 영아의 경우 교사와의 애착안정성(이명주, 유연옥, 2011)이 영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적 요인 중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유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사회적 관계이며 환경이고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부모와 교사 중에서 부모의 역할이 교사보다 유아의 놀이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성혜, 차현화, 윤현숙, 2003).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없으나, 기존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 등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이 아버지의 영향력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영진, 노승희, 2017). 더욱이, 어머니는 유아의 첫 놀이 상대자이며 주양육자로서 유아의 놀이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유아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은 유아의 놀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정미라, 김민정, 이방실, 2015).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관련 변인을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어머니

관련 변인들로 어머니의 양육태도(김영희, 2012), 긍정적 정서표현성(손현주, 김희화, 2018), 사회성(임진경, 노은호, 2014) 등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 특히 어머니의 애정성과 합리적 지도 등을 포함한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놀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신선희, 차윤희, 김영희, 2008), 이러한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사교적이며 활동적인 외향성과 낮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손영지, 박성연, 2011).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으나,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성격 및 심리적인 변인들이 결국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행동을 통해 유아기 자녀의 놀이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관련 변인 중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어머니의 성인애착을 중심으로 유아의 놀이성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어머니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의 기초가 된다(Bowlby, 1969). 즉,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어머니-자녀 간의 관계 및 어머니-자녀 간의 놀이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홍정연, 2009). 특히 불안정 애착 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어린 시절 양육자와 맺은 초기 애착이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대인관계 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불안정 애착성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놀이상황에서 유아의 활동성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숙화, 2008). 불안정 애착이 자녀의 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기 때문에(Ward & Carlson, 1995),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Benoit & Parker, 1994). 또한 불안정 애착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 애착성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더욱 많이 드러내고(안명희, 2010b; 이현주, 안명희, 2012), 심지어 자녀의 자기표현을 억제하고 자녀의 문제행동으로도 이어진다(김정란, 이은희, 2007; 안명희, 2010b; 이현주, 안명희, 2012).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불안정 애착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들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긍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며 자기표현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도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유아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자신을 표현

하고 놀이로 승화시키는 능력인 놀이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반면, 선행연구에서 애착 안정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는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수용하고 표현하며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안정된 정서가 중요하다(김우경, 방희정, 2015)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결과들로부터 이 두 변인 간의 관련성에 대한 추론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유아 놀이성 관련 변인에 대한 다양한 탐색은 유아 놀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법 모색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에 초점을 두고 두 주요 변수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다. 불안정 애착 성향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녀의 긍정적 결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입하고자 할 때,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을 중심으로 개입방법을 모색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미 오랜 시간 원 가정으로부터 형성된 불안정 애착성에 대한 개입은 치료적 개입이 아닌 한 쉽게 변화되기 어려운 개인 특성이어서, 보다 현실적인 중재로 변화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조절변수를 파악하여 이 변수를 활용한 개입방법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수로서 어머니의 놀이신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신념이란 어떠한 주장, 판단 또는 의견 등에 가치를 두고 이를 믿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어머니가 지닌 신념은 어머니의 행동을 지배하는 가치관과 기대로서 행동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윤승립, 2009).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가진 놀이에 대한 신념은 어머니-자녀 간의 놀이 상호작용과 놀이에 대한 생각과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Fogel, 2003). 유아의 놀이 경험은 어머니의 놀이 신념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Fisher,

Hirsh-Pasek, Golinkoff, & Gryfe, 2008),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놀이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김영희, 2012). 그러나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놀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일관적이지 않다(권인옥, 안효진, 2015).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연구도 있다(권인옥, 안효진, 2015). 따라서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놀이성을 예견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지만 신념과 실제적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에서 연구자마다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어머니의 양육 및 놀이 행동을 통해서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하에 어머니의 놀이신념에 따라서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또한 최근 놀이중심 유아교육을 강조하는 부모교육의 보급과 부모-자녀 간의 놀이 기회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변화되고 있다는 연구들을 통해서 놀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긍정적인 놀이신념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문소라, 황혜정, 2017). 이현지와 정혜옥(2016)의 연구에서 오늘날 부모들이 놀이에 대해 갖는 인식과 신념이 크게 변화한 결과 부모들의 놀이 지지 신념이 학습을 중시하는 신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유아의 발달과 삶에 미치는 놀이의 영향력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이 유아의 놀이성 수준을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놀이를 지지하는 신념을 지녔다면 어머니가 자녀와 맺는 관계와 상호작용 방식이 유아의 놀이성에 기여하도록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 놀이중심지지 신념 및 유아의 놀이성의 특성과 변수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놀이중심지지 신념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를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이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 만 3세, 4세, 5세 유아 254명과 검사대상 유아의 어머니 254명과 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유아의 놀이성은 유아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의 담임교사가 측정하였다. 이는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에 대한 연구(류자혜, 2003)에서 부모는 교사보다 유아에 대하여 더욱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이 강해서 유아의 놀이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254)

요인	구분	빈도(%)	
유아의 성별	남아	119(46.9)	
	여아	135(53.1)	
형제, 자매 (유아 포함)	1명	62(24.0)	
	2명	163(64.2)	
	3명 이상	29(11.4)	
어머니의 취업여부	그렇다	125(49.2)	
	아니다	129(50.8)	
월평균 가구소득	400미만	29(11.4)	
	400-500미만	51(20.1)	
	500-600미만	63(24.8)	
	600-700미만	36(14.2)	
	700이상	50(19.7)	
어머니의 최종학력	고졸 이하	46(18.1)	
	2, 3년제 대학 졸업 이상	72(28.3)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36(53.6)	
	Min.	Max.	M(SD)
유아의 연령	3	5	4.23(0.81)
함께 놀이하는 시간 (하루 기준)	0.25	8	1.90(1.31)
어머니의 연령	21	48	36.67(4.02)

2. 연구도구

1)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Barnett(1990a)이 개발한 유아의 놀이성 척도(Children' Playfulness Scale)를 김영희(1995)가 번역한 뒤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유아의 담임교사가 평정하였다. 본 척도는 신체적 자발성(4문항), 사회적 자발성(5문항), 인지적 자발성(6문항), 즐거움의 표현(5문항), 유머감각(5문항)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Likert식 5점 척도로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된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측정도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자발성은 .83, 사회적 자발성 .83, 인지적 자발성 .90, 즐거움의 표현 .84, 유머감각 .88, 놀이성 전체는 .93으로 나타났다.

표 2. 놀이성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신체적 자발성	1, 2, 3, 4	4	.83
놀이성	10, 11, 12, 13, 14	5	.90
유머감각	21, 22, 23, 24, 25	5	.88
전체	1 ~ 25	25	.93

2)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Fraley와 Waller 그리고 Brennan(2000)이 개발한 친밀관계 경험 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Revised; ECR-R)을 김성현(2004)이 번안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입증한 ECR-R-K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불안애착(18문항), 회피애착(18문항)의 2가지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문항이다. 불안정 애착성은 어머니의 성인애착 유형이 불안정함을 의미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불안정 애착을 투영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본 척도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화나 있을 때만 나에게 주목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 7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36문항에 해당하는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표 3. 불안정 애착성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 변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불안 애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	.92
불안정 애착성 회피 애착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8	.80
전체	1 ~ 36	36	.89

주) *는 역채점 문항임

3)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Fogel(2003)이 개발한 부모 놀이신념 척도(Parent Play Beliefs Scale: PPBS)를 이현지(2016)가 번안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PBS 척도는 놀이중심지지 신념(17문항)과 학습중심지지 신념(8문항)의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놀이중심지지 신념에 해당하는 하위 척도(17문항)만 사용하였다. 놀이중심지지 신념은 놀이가 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즐거운 활동이라고 믿는 신념으로서 ‘놀이는 아이의 언어 및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킨다.’, ‘나는 놀이를 하면서 아이의 감정조절력을 키워줄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된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살펴본 결과, 놀이중심지지 신념은 .91로 나타났다.

표 4. 놀이중심지지 신념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문항 수	Cronbach's α
놀이중심지지 신념	.91

4)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놀이중심지지 신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통제변인에 유아의 성별(강지혜, 이경님, 2011; 장완수, 2012)과 연령(Barnett, 1991), 어머니의 취업여부(임진경, 노은호, 2014)와 놀이참여 시간(윤상인, 2011), 월평균 가구소득(김수정, 2007)이 포함되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및 충청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에서 5세 연령에 해당하는 유아의 어머니와 해당 유아를 대상으로 2018년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3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놀이중심지지 신념에 해당되는 설문지는 어머니에게 배부하고,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할 설문지는 담임교사에게 배부하였다. 배포된 300부의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또는 어머니용-교사용 설문지가 짝을 이루지 못한 설문지 46부를 제외하고 총 254부의 설문지를 최종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3.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

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 통제변수를 먼저 투입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 변수를 투입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각각 평균중심화한 값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 놀이중심지지 신념 및 유아의 놀이성의 특성과 관계

주요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포함한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놀이성의 평균은 3.67($SD = .57$)이며, 놀이성은 약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의 평균은 3.01($SD = .68$)으로

응답 가능한 점수 범위가 1점에서 7점인 것을 고려하면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놀이중심지지 신념의 평균은 4.41($SD = .46$)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표 5. 주요 변수의 전반적인 경향 (N = 254)

변인	M	SD	Min.	Max.	Skewness	Kurtosis
유아의 놀이성 총점	3.67	.57	1	5	-.04	-.25
신체적 자발성	3.62	.83	1	5	-.24	-.48
사회적 자발성	3.67	.68	1	5	-.17	-.13
인지적 자발성	3.38	.85	1	5	-.14	-.17
즐거움의 표현	3.86	.61	1	5	.01	-.33
유머감각	3.62	.82	1	5	-.20	-.53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	3.01	.68	1	7	.24	.21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	4.41	.46	1	5	-.79	.66

다음으로 주요 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와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

표 6. 유아의 배경변인과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 놀이중심지지 신념 및 유아의 놀이성 간의 상관관계 (N = 25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유아 성별	1												
2. 유아 연령	.05	1											
3. 취업여부	.02	.15*	1										
4. 놀이참여시간	-.06	-.15*	-.13*	1									
5. 월 평균 소득	.18*	.23*	.16*	-.14*	1								
6. 불안정 애착성	-.10	.02	-.02	.00	-.11	1							
7. 놀이중심지지 신념	.02	.05	.11	.10	.12	-.27**	1						
8. 놀이성 총점	.08	.04	.03	.11	.16*	-.16*	.15*	1					
9. 신체적 자발성	.09	-.03	-.04	.14*	.15*	-.12	.13*	.73**	1				
10. 사회적 자발성	-.02	.03	-.03	.11	.07	-.14*	.07	.77**	.44**	1			
11. 인지적 자발성	.00	.06	.04	.13	.15*	-.08	.02	.79**	.45**	.60**	1		
12. 즐거움의 표현	.03	-.02	.09	.06	.10	-.27**	.32**	.77**	.48**	.54**	.45**	1	
13. 유머감각	.20**	.08	.05	.00	.16*	-.01	.03	.77**	.56**	.41**	.47**	.49**	1

* $p < .05$, ** $p < .01$, *** $p < .001$.

주)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자녀 성별은 dummy변수로 처리함. 취업여부: 아니다=0 그렇다=1, 자녀 성별: 여아=0 남아=1

서 유아의 성별은 유아의 놀이성 중 유머감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r = .20, p < .01$), 놀이성의 다른 하위요인이나 총점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유아의 연령과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유아의 놀이성 하위요인이나 총점과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은 유아의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14, p < .05$)을 보였으나 놀이성의 다른 하위요인이나 총점과는 상관이 없었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유아의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r = .15, p < .05$), 인지적 자발성($r = .15, p < .05$), 유머감각($r = .16, p < .05$), 그리고 놀이성 총점($r = .16, p < .05$)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은 유아의 놀이성 중 사회적 자발성($r = -.14, p < .05$), 즐거움의 표현($r = -.27, p < .01$), 그리고 놀이성 총점($r = -.16, p < .05$)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유아의 놀이성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은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과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7, p < .01$).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은 유아의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r = .13, p < .05$), 즐거움의 표현($r = .32, p < .01$), 그리고 놀이성 총점($r = .15, p < .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2.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놀이중심지지 신념이 유아의 놀이성 하위요인 및 총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유아의 놀이성 하위요인 및 놀이성 총점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1단계에서 유아 성별과 연령,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 월 평균 가구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놀이중심지지 신념을, 3단계에서 불안정 애착성과 놀이중심지지 신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한 값을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VIF 계수의 범위는

10을 넘지 않았고, Durbin-Waston 지수는 1.46으로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검증을 통하여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놀이중심지지 신념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아의 놀이성 중에서 즐거움의 표현에서만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놀이중심지지 신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그러나 이 두 변수는 유아의 놀이성의 다른 하위요인과 총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beta = -.19, p < .01$)은 유아의 즐거움의 표현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beta = .26, p < .001$)은 유아의 즐거움의 표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수준의 어머니 불안정 애착성은 낮은 수준의 유아 즐거움의 표현을 예측하며,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이 강할수록 유아도 높은 수준의 즐거움의 표현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3.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의 조절효과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유아의 놀이성 중 즐거움의 표현에 대해서만 놀이중심지지 신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놀이성 총점과 놀이성의 다른 하위요인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유머감각에 대해서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유아의 즐거움의 표현 간의 관계에 대한 놀이중심지지 신념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beta = -.19, p < .01$)과 놀이중심지지 신념($\beta = .26, p < .001$)은 즐거움의 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두 변인의 고유 설명력은 12%였다.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놀이중심지지 신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놀이중심지지 신념은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이 즐거움의 표현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15, p < .05$), 조절효과의 설명력은 2%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이 유아의 놀이성 총점과 각 하위요인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의 조절효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유아의 즐거움의 표현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의 조절효과 (N = 254)

구분	종속변수	놀이성 총점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Step 1	유아 성별	.06	.05	.10	.07	-.05	-.04	-.05	-.03	.02	.02	.30	.18**
	유아 연령	.02	.01	-.03	-.03	.04	.04	.05	.04	.01	.02	.05	.05
	어머니 취업여부	.03	.03	-.06	-.04	-.04	-.03	.06	.04	.12	.10	.04	.02
	함께 놀이하는 시간	.08	.12	.11	.14*	.06	.09	.12	.14*	.07	.11	.03	.03
	월평균 가구소득	.05	.15*	.08	.16*	.03	.08	.08	.15*	.03	.09	.06	.11
	R^2 (ΔR^2) (adj. R^2) (ΔF)	.04 (.02)	.04 (1.88)	.05 (.03)	.05 (2.22)	.02 (-.01)	.02 (.70)	.04 (.02)	.04 (1.80)	.03 (.01)	.03 (1.20)	.06 (.04)	.06 (2.60)
Step 2	불안정 애착성	-.09	-.11	-.08	-.07	-.12	-.12	-.08	-.06	-.17	-.19**	.04	.03
	놀이중심지지 신념	.10	.08	.13	.08	.03	.02	-.08	-.05	.34	.26***	.02	.01
	R^2 (ΔR^2) (adj. R^2) (ΔF)	.06 (.03)	.02 (2.69)	.06 (.03)	.01 (1.59)	.03 (.00)	.02 (2.05)	.05 (.02)	.00 (.54)	.15 (.12)	.12 (16.92)	.06 (.03)	.00 (.13)
Step 3	불안정 애착성× 놀이중심지지 신념	-.12	-.07	-.12	-.05	.05	-.02	.02	.01	-.28	-.15*	-.21	-.08
	R^2 (ΔR^2) (adj. R^2) (ΔF)	.07 (.03)	.00 (1.09)	.07 (.03)	.00 (.63)	.03 (-.00)	.00 (.11)	.05 (.01)	.00 (.02)	.17 (.14)	.02 (6.23)	.07 (.03)	.01 (1.79)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의 조절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 유아의 놀이성 간에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 유아의 성별은 놀이성 중 유머감각과 관련이 있었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유머감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는 유머를 생산하는 것을 선호하고 여아는 유머에 대한 반응이 주가 된다는 이해경(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지금까지 유아기 유머에 관한 연구는 없었으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유머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경훈, 박숙희, 2014). 연구 대상은 다르지

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성별에 따른 유머의 차이는 비교적 연령의 변화에도 안정적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월 평균 가구소득 수준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율적이며 애정적 양육태도를 갖는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는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여서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유아의 놀이 행동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Hamm, 2006)를 통해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나타나는 양육행동의 차이가 유아의 놀이성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유아의 연령과 취업여부는 유아의 놀이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자체가 유아의 놀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가정환경, 부모의 역할, 어머니의 양육태도 등과 같은 근접환경의 요인들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김수정, 2007)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만으로 유아의 연령과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유아의 놀이성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을 내리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유아의 놀이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은 유아의 놀이성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은 자녀와의 놀이 상황 중에 활동성 및 감정성 등과 부적 상관이 나타난다는 연구(Crowell & Feldman, 1991)를 지지한다. 또한, 불안정 애착성이 대인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의 바탕이 되는 양육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Park, Crocker, & Mickelson, 2004) 결과를 뒷받침한다.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불안정 애착성이 아닌 안정된 애착일 경우, 어머니가 자녀를 격려해주고 애정적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불안정 애착성의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기 때문에(권영임, 2011) 결국 유아의 놀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박정연, 이성희, 2009).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안정 애착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관계에 대한 두려움 및 불안을 느끼기 쉽다(Collins & Read, 1990; Hendrick & Hendrick, 1989). 선행연구에서도 불안정 애착은 우울과 관련이 있고(Cooper, Shaver, & Collins, 1998),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높은 우울 수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impson, Rholes, Campbell, Tran, & Wilson, 2003). 결국 불안정 애착성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불안 및 우울 등의 부정적 심리상태와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정적 심리상태와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은 온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며(김춘경, 조민규, 2017),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따라서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유아에게 부정적 양육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놀이성을 낮

출 수 있다(박정연, 이성희, 2009).

또한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은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아직까지 국내의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놀이신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애착과 신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불안정한 성인애착은 긍정적인 신념과 부적상관을 보이며(김종운, 김미정, 2015), 역기능적 신념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박민선, 채규만,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불안정 애착성에 내재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Collins & Read, 1990; Hendrick & Hendrick, 1989). 놀이중심지지 신념은 놀이가 중요하고 유아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발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기본 전제로 한다. 즉 유아라는 대상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불안정 애착성의 기저에 있는 타인에 대한 불신은 이러한 믿음이 공고해지는 걸 방해할 수 있다. 반면, 놀이중심지지 신념이 강화될수록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발달하는 유아의 힘에 대한 믿음도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이는 자녀에 대한 믿음과 자녀와의 관계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은 유아의 놀이성과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놀이중심지지 신념이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김지은, 신나리, 2014; 김진영, 최미숙, 2012)들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놀이중심지지 신념과 유아의 즐거움의 표현 간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은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이 강할수록 유아가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고 놀이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다양한 놀이에 참여한다고 보고한 연구를(김종석, 2011) 뒷받침 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놀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어머니는 자녀가 놀이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놀이 상호작용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녀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가 가진 신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놀이중심지지 신념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

의 즐거움의 표현에서는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놀이중심지지 신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나, 유아 놀이성의 다른 하위요인과 놀이성 총점에 대해서는 두 변인의 영향력을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성,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높다(안명희, 2010b; 이현주, 안명희, 2012). 유아의 놀이성 중에서도 즐거움의 표현은 다른 놀이성 하위요인보다 심리정서적 성격이 강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변인들을 양육행동, 심리적 특성과 부부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즐거움의 표현에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유아 놀이성의 하위요인별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아버지 관련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배미경, 2015). 즉 아버지의 우울 수준이 높고 외향성이 낮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자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버지가 인식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즐거움의 표현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배미경, 2015). 배미경(2015)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정서적 측면이 유아의 즐거움의 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유아의 즐거움의 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정서적 측면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 영향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도 유아의 즐거움의 표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놀이성이 놀이지지신념을 매개로 친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지은과 신나리(201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들의 놀이를 지지하는 신념이 강한 어머니들은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높으며(김영희, 2012), 자녀의 놀이에도 더 많이 참여하고(김명순, 조항린, 박영림, 신혜영, 2013; 김지은, 신나리, 2014) 더 높은 수준의 놀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김명순 외, 2013). 어머니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와 놀이상호작용으로부터 유아는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셋째,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의 조절효과는

유아의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즐거움의 표현'에서만 나타났다. 즉, 동일한 수준의 불안정 애착성을 지닌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가 놀이중심지지 신념을 가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아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수준이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가 유아 중심 놀이신념을 지닐수록 즐거움의 표현을 포함한 유아의 놀이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김영희, 2012)와 맥을 같이 한다.

놀이에서 즐거움이란 가장 일차적이며 기본적인 특징으로 유아의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류자혜, 2003). 즐거움의 표현은 유아가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아가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현할수록 또래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유지하며 인기가 있는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Denham et al., 2003). 하지만 즐거움의 표현 능력은 유아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면, 불안정 애착성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공격적인 태도와 무관심을 보이는 양육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안명희, 2010a). 이러한 양육행동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및 놀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유아가 정서적 만족감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유아의 놀이성 수준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이 강할수록 어머니는 자녀와의 놀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유아 간의 놀이상호작용 시간이 많고(김명순 외, 2013), 이로 인하여 어머니-유아 간 친밀도를 높아져서 유아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놀이중심지지 신념은 어머니가 자녀의 놀이를 지지하며 자녀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자녀의 놀이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김명순 외, 2013). 또한 어머니의 놀이신념은 유아의 정서능력 중 정서조절능력, 자기정서인식표현능력과 타인정서인식표현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진화 외, 2009). 따라서,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이 즐거움이라는 정서표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동시에 불안정 애착성이라는 심리적 특성에 의해 가장 영향 받기 쉬운 유아의 정서능력에 대하여 조절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결국, 불안정 애착성을 지닌 어머니일지라도 놀이중심지지 신념이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자녀와의

놀이상호작용도 빈번하며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자녀와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은 불안정 애착성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하여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

반면, 유아 놀이성의 다른 하위요인에서는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주(2007)에 의하면,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놀이성 중 즐거움의 표현과 관계가 있다. 이처럼,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유머 감각 등은 즐거움의 표현이라는 정서표현에 비하여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요인에 의해 덜 영향 받을 수 있다.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은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내적작동모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화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어머니의 놀이신념은 부모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김명순 외, 2013). 따라서 유아의 놀이성 발달을 위해 어머니가 긍정적인 놀이신념을 갖고 자녀와의 놀이에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유아가 필요로 하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양육행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통해 함께 놀이하는 실질적인 방법과 놀이상담, 놀이교육 등으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놀이신념과 놀이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놀이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어머니와 자녀 간의 놀이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사회적 차원에서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녀와의 놀이에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을 어머니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놀이 수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별 맞춤형 놀이교육의 제공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놀이중심지지 신념의 강화를 통해 자녀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 관계 형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교육을 통한 놀이중심 양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자녀와의 놀이에서 놀이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놀이 상호작용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질적으로 충분한 어머니-자녀 간 놀이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아는 보다 성숙한 수준의 놀이로 자랄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이 높더라도 어머니가 놀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경우, 유아가 놀이 상황 안에서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와 유아 254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더 다양한 지역에서의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다양한 지역의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표집의 수를 늘려 지역에 따른 놀이신념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놀이중심지지 신념에 관한 설문지는 어머니가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생각과 신념에 맞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심층 면접을 통한 자료 수집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설문지를 유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생활을 근거로 하여 담임교사가 응답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담임교사를 비롯하여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바탕으로 유아의 놀이성을 조사하여 비교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지혜, 이경님(2011). 유아의 개인적 요인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59-180.
- 고윤지, 김명순(2013). 유아의 놀이성, 놀이주도성 및 의사 소통능력 수준에 따른 놀이행동. **아동학회지**, 34(1), 175-189. doi:10.5723/KJCS.2013.34.1.175
- 권숙화(2008).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유아의 창의성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임(2011).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아동교육**,

- 20(2), 85-96.
- 권인옥, 안효진(2015). 영아를 둔 아버지들의 부모 효능감, 놀이 신념, 그리고 영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7(4), 165-183.
- 김기순, 박인전(2002). 아버지 양육행동 및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5(2), 27-43.
- 김명순, 조항린, 박영림, 신혜영(2013). 부모와 유아 자녀의 놀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5(1), 37-53.
- 김성현(2004). 친밀관계 경험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장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2007).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자녀 관계 및 유아의 놀이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95). 아동의 놀이성 군(群)확인과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201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7(2), 27-46.
- 김우경, 방희정(2015). 어머니 불안과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 간의 관계: 아동 애착 안정성의 조절 효과. **인간발달연구**, 22(4), 67-81. doi: 10.15284/kjhd.2015.22.4.67
- 김정란, 이은희(2007). 중년 여성의 불안정 애착이 본인의 우울수준 및 자녀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갈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97-319.
- 김종석(2011). 아버지의 놀이성과 부모 효능감 및 양육 행동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중운, 김미정(2015).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향유신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3), 541-562.
- 김지은, 신나리(2014). 유아기 어머니의 놀이성, 놀이지지 신념 및 양육스트레스가 친밀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3(4), 571-585. doi:10.5934/kjhe.2014.23.4.571
- 김진영, 최미숙(2012). 부모 놀이신념 수준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 및 리더십의 차이. **아동교육**, 21(4), 189-206.
- 김춘경, 조민규(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6, 33-56.
- 류자혜(2003).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소라, 황혜정(2017).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중심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놀이신념, 놀이참여 및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6(3), 149-168. doi:10.17643/KJCE.2017.26.3.08
- 박민선, 채규만(2013).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역기능적 신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인간이해**, 34(2), 111-129.
- 박정연, 이성희(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Montessori 교육연구**, 14(1), 40-57.
- 배미경(2015). 유아의 기질, 아버지의 양육행동, 심리 및 부부특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영지, 박성연(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간의 관계: 성격의 중재효과. **인간발달연구**, 18(2), 125-144.
- 손현주, 김희화(2018).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정서표현 수용 태도의 조절효과 및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매개 효과. **인지발달중재학회지**, 9(1), 15-30. doi: 10.21197/JCEI.9.1.2
- 신선희, 차윤희, 김영희 (2008). 어머니의 놀이성 및 양육 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미래유아 교육학회지**, 15(1), 281-299.
- 안명희(2010a). 모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통제: 모의 정서와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91-710.
- 안명희(2010b).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와 심리적 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67-885.

- 유경훈, 박숙희(2014).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창의성과 유머 스타일 비교. *Global Creative Leader*, 4(1), 43-55.
- 윤상인(2011). 맞벌이 부모가 지각한 놀이신념 및 놀이 참여도와 만2세 영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승림(2009).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주, 유연옥(2011). 교사-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재원경험에 따른 2세 영아의 놀이성과 어린이집 적응.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2), 1-20.
- 이영진, 노승희(2017).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1(4), 301-324.
- 이재은(2006).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화, 임원신, 조성연(2009). 어머니의 놀이신념, 유아의 정서능력과 유아교육기관 적응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0(3), 149-170.
- 이현주, 안명희(2012).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 능력과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413-434.
- 이현지(2016). 부모의 놀이신념, 놀이참여, 유아의 행복감 간의 관계: 부모의 놀이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지, 정혜옥(2016). 부모의 놀이신념, 놀이참여, 유아의 행복감 간의 관계: 부모의 놀이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육아지원연구*, 11(4), 77-95. doi:10.16978/ecec.2016.11.4.004
- 이혜경(2010). 만 5세 유아의 놀이성 및 정서능력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성혜, 차현화, 윤현숙(2003). 부모 및 교사의 역할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역할놀이와 신체놀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7(2), 181-205.
- 임진경, 노은호(2014). 교육조력자로서의 어머니 특성 변인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4(3), 1-21.
- 장완수(2012). 유아의 성에 따른 놀이성과 일상적 스트레스의 차이 및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4(2), 1-14.
- 정미라, 김민정, 이방실(2015).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양육 태도가 유아기 자녀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4(1), 101-122.
- 정미라, 이방실, 강수경(2017)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행동과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7(5), 413-434. doi:10.18023/kjece.2017.37.5.018
- 정은주(2007). 어머니 정서 표현성 및 정서 수용 태도가 유아의 성격특성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옥(2014).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만족도 및 양육 효능감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339-360.
- 최미숙, 송순옥(2013). 유아의 놀이성이 자기조절능력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2(2), 277-292.
- 홍정연(2009). 놀이치료 중인 아동 어머니의 성인애착 유형과 양육효능감 및 정서표현 수용태도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윤세, 이혜원(2005). 유아의 정서지능 및 사회적 유능감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6), 335-349.
- Barnett, L. A. (1990a). Playfulness: Definition, design, and measurement. *Play & Culture*, 3(4), 319-336.
- Barnett, L. A. (1990b). Developmental benefits of play for childr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138-153. doi:10.1080/00222216.1990.11969821
- Barnett, L. A. (1991). The playful child: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 Culture*, 4(1), 51-74.
- Benoit, D., & Parker, K. C. H. (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65(5), 1444-1456. doi:10.2307/1131510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London, UK: The Hogarth Press.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Cooper, M. L., Shaver, P. R., & Collins, N. L. (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380-1397.
- Crowell, J. A., & Feldman, S. S. (1991). Mothers'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mother and child behavior during separation and reun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597-605. doi:10.1037//0012-1649.27.4.597
- Denham, S. A., Biar, K. A., Demulder, E., Levitas, T., Sawyer, K., Auerbach-Major, S., & Queenan, P. (2003). Preschool emotional competence: Pathway to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74*(1), 238-256. doi:10.1111/1467-8624.00533
- Fisher, K. R., Hirsh-Pasek, K., Golinkoff, R. M., & Gryfe, S. G. (2008). Conceptual split? Parents' and experts' perceptions of play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305-316. doi:10.1016/j.appdev.2008.04.006
- Fogel, L. (2003). Parent belief about play: Relations with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child peer play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Columbia.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doi:10.1037/0022-3514.78.2.350
- Glynn, M. A., & Webster, J. (1992). The adult playfulness scale: An initial assessment. *Psychological Reports, 71*(1), 83-103. doi:10.2466/pr0.1992.71.1.83
- Hamm, E. M. (2006). Playfulness and the environmental support of play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isabilities. *Occupation, Participation and Health, 26*(3), 88-96. doi:10.1177/153944920602600302
- Hendrick, C., & Hendrick, S. S. (1989). Research on love. Does it measure 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5), 784-794. doi:10.1037//0022-3514.56.5.784
- Lieberman, J. N. (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2), 219-224. doi:10.1080/00221325.1965.10533661
- Lovejoy, M. C., Graczyk, P. A., O'Hare, E., & N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5), 561-592.
- Park, L. E., Crocker, J., & Mickelson, K. D. (2004). Attachment styles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10), 1243-1254. doi:10.1177/0146167204264000
- Simpson, J. A., Rholes, W. S., Campbell, L., Tran, S., & Wilson, C. L. (2003). Adult attachment,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172-1187. doi:10.1037/0022-3514.84.6.1172
- Ward, M. J., & Carlson, E. A. (1995). Associations among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mother attach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66*(1), 69-79. doi:10.2307/1131191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Play Support Beliefs on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Insecure Attachment and Children's Playfulness

Min Kyung Chae

Play Therapist, Ewha Chil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Kyung Eun Jahng

Associate Professor, Dept.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play support beliefs on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insecure attachment and children's playfulness.

Methods: The research participants of this study include 254 children aged 3 to 5, who attended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Gyeonggi and Chung-cheong, and their 254 mothers. For data analyses,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using SPSS 23.0 program.

Results: First, there was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mothers' insecure attachment and play support beliefs. Social spontaneity and expression of joy were negatively related to mothers' insecure attachment. However, mothers' play support beliefs showed positive associations with children's playfulness, particularly including children's physical spontaneity and expression of joy. In addition, mothers' play support beliefs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insecure attachment and children's expression of joy. However, the beliefs did not moderate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insecure attachment and other playfulness traits.

Conclusion/Implications: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 that mothers'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play may buffer the adverse effect of mothers' insecure attachment on children's capabilities of expressing their sense of pleasure.

Keywords: mother's insecure attachment, child's playfulness, mother's play support belief

Received October 31, 2018

Revision received February 24, 2019

Accepted March 12, 2019